



사이노라, 2018년 SID 디스플레이 위크에서 고성능 청색 TADF 이미터 공개

브루흐잘, 독일, 2018년 05월 17일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TADF(열활성화지연형광) 물질 분야의 선두기업 사이노라(CYNORA)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8년 SID 디스플레이 위크(SID Display Week)에서 최신 고성능 청색 발광 물질을 공개했다.

현재 사이노라는 업계 최초의 청색 고효율 이미터(emitter) 상용화를 완료하기 위해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지난 2년 간 프리미엄 모바일 및 TV 디스플레이의 표준이 됐지만 아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 고효율 청색 OLED 이미터는 전력 소모 감소 및 디스플레이 해상도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 지난 수년 간 고효율 청색 이미터에 대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들의 요청이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료 공급업체도 이러한 이미터를 생산해내지 못했다.

고유의 TADF 기술을 보유한 사이노라는 그 동안 고효율 청색 이미터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SID 디스플레이 위크에서 최신 개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독일 기업인 사이노라의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및 투자자 컨퍼런스(Business and Investor Conference)와 기술 심포지엄(Technical Symposium) 기간에 관련 발표를 하게 된다.

사이노라의 최고과학책임자 토마스 바우만(Thomas Baumann)은 “사이노라는 청색 TADF 이미터 분야에서 다시 한 번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며 “2017년 SID 디스플레이 위크에서 제품 발표를 한 후로 우리는 효율성 및 색점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이뤄냈고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 분야의 최종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이노라의 최고마케팅책임자 안드레아스 할디(Andreas Haldi)는 “우리는 이 최종 단계의 물질 개발을 위해 투자자인 LG 디스플레이 및 삼성 디스플레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고객들은 OLED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한층 높여줄 우리 기술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SID 디스플레이 워크 방문객은 독일 전시관 722번 부스에서 사이노라를 만날 수 있다.

사이노라(CYNORA) 개요

사이노라는 TADF(열활성화지연형광) 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회사는 현재 고효율 OLED 발광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100여명의 TADF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 팀을 운영 중인 사이노라는 100여개의 특허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IP(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노라는 한국과 중국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재료 및 장치 개발 분야에서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